

조 환 개인전

CHO Hwan

Solo Exhibition



전시명 : 조 환 개인전

CHO Hwan Solo Exhibition

일 시 : 2014년 1월 8일(수) - 2월 9일(일) 33일간

장 소 : 학교재갤러리 본관

문 의 : 02-720-1524~6

출품작 : 22점

1. 전시 개요

학교재 갤러리는 2014년 첫 전시로 1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갤러리 본관에서 조환(56) 개인전을 선보인다. 조환은 한국화의 현대적 변용을 통해 새로운 미술을 추구해온 작가다. 그의 작업은 동양화의 기본인 서예에 바탕을 두고 출발하여 설치 작업까지 이어졌다. 작가는 기존 동양화가 주목하는 관념과 정신에만 치우치지 않고 물질이 가진 성격과 기법의 확장으로 작품의 범위를 넓혔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철관을 자르고 이어 붙이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형상을 구축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조환의 철관 작업은 느리고 무겁지만 은근하면서도 거침없는 기세를 지니고 있다. 작업은 마치 서예의 필획을 연상케 하는 단순화 된 선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에는 설치 작업 20점과 서예 작업 2점이 소개된다. 이번에 소개되는 설치 작품은 특정한 틀 없이 작품 그대로 전시장에 전시된다. 작품이 걸린 흰 벽은 마치 동양화의 여백 같은 느낌을 선사한다. 작품을 마주하는 관객은 공간에 구애 받지 않는 작가의 작업을 보면서 구체적인 형상의 이미지들이 만들어내는 무한한 공간을 체험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시 구성



무제, 2013, Steel, LED, 325x732x338cm

이 작품은 예술의 본질과 근본적인 것에 이르고자 하는 작가의 예술 세계를 담고 있다. 작가는 불교의 경전 중 반야심경을 차용하여 이를 표현한다. 예술적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대상의 실상을 진실하게 직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술적 본질은 가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작가의 정신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앞쪽의 반야용선(般若龍船)은 불교 설화에서 등장하는 소재로,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彼岸)의 극락정토를 갈 때 탄다는 배다. 참된 지혜와 깨달음을 얻은 중생이 극락정토로 가기 위해 타고 건너가는 수단이다. 뒤쪽에 배치된 글은 중국 당나라의 서예가 장욱(張旭)이 쓴 반야심경 구절 전문이다. 작가는 예술의 본질로 가는 방법이 불교에서 주장하는 가시적 현상계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영원불변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무제, 2013, Steel, polyurethane, 311x452x10cm

이번 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철판을 자르고 이어붙인 작업은 전통 산수화와 서예의 획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었다. 철판 작업은 대부분 사군자 혹은 산의 형상을 그려내고 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오브제 그 자체로서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작품은 입체적으로 설치되어 조명을 받고 그로 인해 그림자가 생길 때에 완성된다. 이 때 그의 작업은 한 폭의 수묵화를 연상시킨다. 틀이 생략된 작품이 걸린 흰색 벽 전체는 동양화의 여백의미를 전달한다.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용접 자국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나뭇가지와 잎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동시에 수묵화에서의 먹의 중첩을 보는 듯한 효과도 자아낸다. 작가는 작품이 비로소 하얀 벽에 설치되어 그림자와 함께 드러날 때에 그의 작업이 생성된다고 말한다.

“장욱의 절차고, 안진경의 옥루훈, 왕희지의 추희사, 회소의 비조출림과 경사입초, 삭정의 은구채미는 모두가 같은 하나의 필법이다. 마음은 손을 알지 못하고 손은 마음을 알지 못하는 법일 따름이다. 모든 필법은 자연과 통하고 기교가 무르익으면 교묘함이 저절로 나온다.”



황산곡 논서구 (黃山谷 論書句), 2013, 화선지, 먹, 136x41cm

작가는 중국 북송의 시인 황산곡(黃山谷, 황정건(黃庭堅), 1045 ~ 1105)의 필론구를 상형문자로 표현하였다. ‘쇠로 만든 비녀의 끝이 둥글게 꺾인 것과 같이, 수직으로 선을 그으면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모래에 송곳으로 그어제끼듯, 숲 속에서 새 한 마리가 급하게 날아오르는 모습처럼, 놀란 뱀이 풀 속으로 달아나는 것처럼’ 평면의 선이 아닌 입체적인 획으로 붓글씨를 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예가들은 이를 인용하여, 붓의 움직임이 정확하고 힘이 있으면서 침착하고 중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전시 서문

자서 (自序)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컴프레서에 고였던 물을 빼지 않아 전기 절단기 공기 호스가 얼어붙은 핑계로 잊지너부터 밤늦게까지 마신 술은 깨지 않고 아침부터 눈보라가 치니 당최 작업장을 갈 엄두가 나질 않는다. 게으른 농사꾼 받고랑만 쉰다더니 내가 아예 그 짝이다. 전시는 코앞으로 다가와 있고 마무리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또 술을 마셨으니 후회가 막심하다. 이게 어디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선여섯 해를 이렇게 살아왔는데 새삼스레 반성한다고 무엇이 달라질 까보냐. 그나마 이런 뻘뻘함에도 믿는 구석이 아예 없지는 않다.

노자가 말했다. ‘회오리바람은 아침나절 잠깐이요(飄風不終朝), 소나기는 하루 내내 내리지 않는다(驟雨不終日).’ 노자의 말은 그 둘레가 넓다. 내 편한 데로 억지를 부려 건강부회하자면 이렇다. ‘의도적인 조작을 삼가자. 자연 그대로의 변화를 받아들이자. 무위 본성에 따라 만물이 운동하고 변화할진 데 그것의 자기 전개에 공감하지 않고 어찌 배길 것이냐. 세상에 고착화된 불변이란 없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예전보다 떨어져 주량이 점점 줄고 숙취가 길어지는 것도 내 몸 안에서 일어난 자연스런 변화다. 알코올도 마시는 것을 두고 습(習)이라 할망정 ‘습’ 또한 내 몸에 종자(種子)에서 싹을 틔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게다가 나의 빈둥거림은 시간을 지우는 일만은 아니다. 무기력한 가운데 어찌다 손에 잡히는 이런 저런 책들이 뜻밖에도 예사롭지 않다. 그러다가 아무 서첩이나 펴서 임서를 해본다. 쓰고 또 썼던 것인데 어찌 그리도 새롭게 다가오는지 쓸 때마다 놀란다. 혼자 중얼거려 본다. 익숙한 것들은 덜 깨달은 새로움을 숨기고 있었구나... 새로움이란 새것이 아니라, 묵은 것에 대한 재발견이 아닐까... 깨달음의 미묘한 차이가 끝나의 사유이자 나의 안목을 지탱하고 있구나...

그리 오래되지 않은 몇 년 전 어느 미술잡지에서 작가들에게 ‘내 인생에 오십 대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내 대답은 아마 ‘아직도 기다림’ 아니면 ‘지금도 기다림’이라고 하며, 옛 그림이나 글씨를 베끼다 보면 굳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내 솜씨가 조금씩 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언젠가 예측 못할 방법이 있을 거라 주절거린 기억이 난다.

이는 내 시야가 경직되지 않고 유연할 수 있으며 또한 내 작업이 포용하는 경계 또한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작업은 민중을 축에 놓고 역사와 사회가 만든 역학 속에서 그들 삶의 양태를 종이에 모필과 수묵으로 특정한 상황이나 구체적 사건 또는 유의미한 풍경을 표출하려고 노력했다. 허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말초의 감각과 표피의 실촉성(實觸性)이 정직하기는 했으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었다.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서 구조적 모순을 환기해보려 했던 내 노력은 웬지 걸돌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갈급하기만 했던 내 몸부림은 허망한 몸짓에 머물고 있었고, 게다가 내 작업은 기능적 한계까지 드러내고 있었다. 더는 내 그림 속의 주인공을 불러낼 수 없었다. 삶은 상관(相關)이다. 어쨌거나 살아보는 것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그 이해의 근거를 다시 삶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던가.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궁극적인 물음이 내 작업의 총체적이며 전면적인 재고를 요구하게 되었다.

뉴욕에서 5년 동안, 그림 그리기와 사이를 두었다. 대신 조소에 힘을 기울였다. 어쩌면 그리기의 도피로서 만듦에 집중했는지도 모르겠다. 비록 막연하게 시작했던 조소지만, 그것은 습관적으로 또는 맹목적으로 써왔던 먹의 개념을 다시 일깨워주었다. 공간에 대한 인식도 새로워졌다. 그것이 자연스레 회화에 영향을 주어 정형화된 사각이라는 틀을 깰 수 있었다. 그렇다고 서예와 옛 그림 등 고전의 세계가 어디로 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것에 대한 나의 오랜 경도(傾倒)는 의식의 변방을 확장시켰다. 내용과 형식이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지

니고 있듯이 작업의 표현 방식이 점차 달라진다는 것은 내가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미적인 직관과 감수성이 달라졌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한편으로, 지루했던 임모(臨模) 과정이지만 덜 깨달았던 의미를 찾아내는 즐거움도 있었다. 다만 형상의 이루어짐에 현혹되지는 않았다. 그 형상의 태동인 획(劃)을 보고 점(點)을 발견하는 일은 곧 ‘성불여장(成不如將, 이루어짐은 이루어지는 것만 못하다)’의 묘체를 체득하는 과정이었다. 본래의 지필묵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개별성을 더욱 심화시키려는 나의 내성은 내 작업의 전 과정을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실마리가 되었다.

화선지에 한 점을 찍어본다. 어릴 때 흙바닥에서 하고 놀던 ‘땅 따먹기’다. 세력이 팽팽하게 느껴진다. 연결한다. 땅을 넓혀나간다. 언뜻 바둑판이 연상된다. 검은 점과 흰 화면은 계백당흑(計白當黑)이다. 대립, 충돌, 만남, 화해하는 환영(幻影)이 보인다. 첩판을 놓고 구멍을 뚫는 순간, 구멍 크기만 한 공간이 나타난다. 첩판은 그냥 오브제일 뿐이다. 구멍 안의 풍경과 오브제가 만난다. 어느덧 활연관통(豁然貫通) 한다. 첩판으로 대나무 잎을 무수히 자른다. 모양새가 제 각각이다. 바야흐로 손을 예찬한다.

이는 흉죽지죽(胸竹之竹)이 아니다. 완성의 전체를 고려하지 않으려 한다는 게 옳은 말일 게다. 작업하는 자의 주관적인 의식이 고집 부리지 않는다. 단순하고 즐거운 노동이다.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한다. 작업이 얼추 된 것 같다. 상처투성이인 물건을 작업장 구석에 던져놓는다. 자연스레 비를 맞고 이슬을 맞으며 부식되어간다. 나는 가끔 가서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다. 세월의 흔적이 더께처럼 쌓인다. 어느 날 먼지와 오물을 털어내고 투명 우레탄 칠을 해 더 이상의 부식을 막는다. 아니면 흔적을 지우려 검은 칠을 한다.

하지만 깊은 상처의 흔적은 감출 수가 없다. 흡사 인생의 마지막 과정을 치러내는 것 같다. 조금은 허망하다. 아니다! 허망은 허상에 집착할 뿐이다. 첩이라는 물질이 열기설기 엮어졌을 뿐이다.

훗날 그 보잘것없는 물건을 벽에 걸고 빛을 비추면 벽과 물건 사이의 공간에서 그림자가 생긴다. 그 그림자와 물건은 중첩되는 또 다른 선들을 만들어 내면서 서걱거리는 바람 소리를 들려준다. 한 폭의 수묵화 같이 보인다. 아니, 그 물건이 오롯이 실체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나의 작업이 비로소 생성되었다.

그 기다림의 과정은 존재의 가치에 대한 질문인 동시에 본래의 모습(本源)인 큰 지혜의 저편 언덕으로 향하는 나룻배를 타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말은 어렵고 글은 희미할 뿐이니 무엇으로 내 손을 대신할꼬.

4. 작가 약력

조환

- 1958 부산 출생
1986 세종대학교 회화과 졸업
1988 세종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1992 - 1997 아트 스튜디오 리그 시각예술대학 조소과 수학, 뉴욕

현재 경기도 양주에서 거주 및 작업
성균관대학교 예술학부 미술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

개인전

- 2014 학교재갤러리, 서울
2012 동산방화랑, 서울
2011 아리랑갤러리, 부산
2010 동산방화랑, 서울
2009 동산방화랑, 서울
2008 금호미술관, 서울
2001 가진화랑, 서울
1999 아그파갤러리, 홍콩
1995 낫소 카운티 문예진흥원 첼시 센터, 뉴욕
1992 갤러리상문당, 서울
1991 금호미술관, 서울
1987 동덕미술관, 서울

그룹전

- 2013 N-차원전 - 상상의 순간들,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2012 산수, 디지털을 만나다,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국제수목대전, 대만국부기념관, 타이페이
산수 너머, 경기도미술관, 안산
2011 21 & 그들의 시대, 금호미술관, 서울
2010 금호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전, 금호미술관, 서울
2009 스펙트럼 - 리듬, 조형, 교감, 세종미술관, 서울
월전미술상 수상작가초대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개관기념전 - 현대미술의 응시,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부산
2008 누군들 따뜻한 남쪽마을이 그림지 않으랴, 국립현대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 장흥
2007 한국화 1953-2007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4 금호미술관 개관 15주년 기념전, 금호미술관, 서울

- 2003 자연의 시간 인간의 시간,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2002 아시아 정신전, 부산문화회관, 부산
한국 미술의 자화상, 세종미술관, 서울
- 1999 동아미술제 20주년 기념 수상작가 초대전, 일민미술관, 서울
- 1998 타이틀, 언타이틀, 노타이틀, 금호미술관, 서울
- 1996 대상 수상 작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92 현대미술의 동향 - 30대 작가전, 한국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오늘의 삶 - 오늘의 미술, 금호미술관, 서울
- 1991 한국화 동세대전, 아라리오 갤러리, 천안
전환시대 미술의 지평전,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화의 오늘과 내일, 워커힐미술관, 서울
- 1990 젊은 시각 - 내일への 제안전,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탈장르의 기수전, 무역센터 현대미술관, 서울
한·중 현대 수묵화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젊은 모색 199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움직이는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89 서울 현대 한국화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80년대의 형상미술전, 금호미술관, 서울
- 1987 한국화 33인전, 한국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작가 초대전, 한국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 1986 한국화 12인전, 한국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수상

- 1999 제4회 월전미술상 수상, 월전미술 문화재단, 서울
- 1986 제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수상,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제5회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수상,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85 제2회 후소회 공모전 대상 수상, 한국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소장

미술은행, 과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금호미술관, 서울
운보미술관, 청원
월전미술관, 이천
문화예술진흥원, 서울
현대건설, 서울
LG그룹, 서울